

-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214호
1월 7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장 신년사

예배, 기도, 찬양 회복...

2023년은 회복의 원년이 되기를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신순복음교회 담임

전해하는 총회원 여러분
대망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복되고 영
광스러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그동안 코
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많
은 일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
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봉사와 헌신이 회
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교단은 코로나19 감염으로 3년 6개월 동안
열리지 못한 총회를 개최하고 믿음의 진보 속에
새로운 위상과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에 환경과 사람에게 위축되어 하나님을 두
려워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일들을 철저하게 회
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으로 잠제되어있
던 흑암의 세력들이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더욱 기
승을 부릴 것입니다. 반 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물결인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와 세속화 등의 파
도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혼미케 하여 세상으

로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포괄
적차별금지법, 인권조례법 교과서개정법 등의 악
법으로 인하여 신앙의 사람들도 혼동케 하여 방황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71차 총회 주제 '성령을 좇아 행
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
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눅 4:6)고 하신 말
씀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도록 성령님을 좇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행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
들을 절에서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
의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행동으로 고난 받으시
는 예수님을 말쑥이 따라가다가 어린 비자 앞에서
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초라함을 보였
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
림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서 목숨 걸고 주
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명쾌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른 이
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
음이니라"(행 4:12)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는 담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
니"(행 4:19-20)

본 교단의 사랑하는 전후배 동역자 여러분, 우
리가 절망의 이세상을 이끄는 복음의 선봉자들이
되기 위하여 어떤 회개에 하루 한 시간 이상 집중
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청종
하여 귀 기울이는 사역자들이 됩시다.

그러므로 본 교단이 성령의 주역으로서의 이
땅에 수많은 교단과 교회의 기본이 되고 표준이
되는 교단이 됩시다. 본 교단 사역자들 모든 분들
이 사역자들의 기준이 되도록 합시다.

올해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김병목 목사



‘지속되어야 하는 신비체험’



조용묵 목사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요 6:65~69)

이론과 인식을 조율하는 불가사의한 것을 가리켜
신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가
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비체험이 날로 누적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신비체험에 대하여 살펴보겠
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신
비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중에는 쉽게 믿은
분들이 있고, 매우 힘들게 믿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
다. 어떤 경우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대
단한 신비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이 신비체험에 속하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수
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선택으로 말미
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창세전에 그
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
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지도 못한 예수님
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
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신비입니다.

둘째,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비체
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근본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
이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은 천국복음은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
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죽음
다음의 삶과 처소에 관한 참된 지식은 성경을 통해
서만 알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체험담을 말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러한 개인적인 신비체험을 성경의 기록처럼 받아들

(은혜와진리교회)

“교육과정안 성혁명 내용 완전 삭제 후 고시해야”

전학연 · 대세총 · 수기총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국민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전·세종·충
남·충북기독교총연합(대세총), 수도권기독교총연
합회(수기총)가 구립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
육부 앞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 촉구 국
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교위(국가교육
위원회)가 개정 교육과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성
혁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려는 결단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보도자료와 교육부 관계자들의 확인에 따
르면 국교위는 보건과목에서 성수열리티(Sexuality)
를 추가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용어는 유지하지
만 성취기준이나 그 해설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제
시하되, 성전환, 조기사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했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교육부가 제
출한 기존 안에 있던 ‘성수열리티’라는 용어를 삭제
했다. 교계 등에서는 이 ‘성수열리티’가 성혁명적 용
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아울러 국교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고, ‘자유민주
주의’ 표현은 유지했다.

전학연 등 단체들은 “그러나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담은 많은 용어들이 개정 교육과정안과 기
존 교과서들에 여전히 남아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
다”며 “국교위가 수정 의결한 교육과정안에서도 다

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성수성), 성적자
기결정권, 성전환, 혐오·차별·편견 금지라는 성
혁명 구현 용어들은 여전히 총론, 각론에 그대로 광
범위하게 남아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동성애, 성전환, 조기사에자, 낙태
를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는 용어들이다. 국교위는 교육과정
안에 여전히 있는 성혁명 용어들을 철저히 삭제하기
는 결정을 해야 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지는 못할망정 망치려는 이들, 국교위안에 반대한 위
원 6인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들은 국교위 전체회
의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퇴장까지 했는데, 그
이유를 충분한 토론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
처리로 했다. 그런데 이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표현
이 들어가고 ‘성혁명’ 내용을 일부 수정한 교육부 심
의본을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불만
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학연 등 단체들은 “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
들에 남아 있는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은 헌법
위반, 국가교육법 위반이고, 반민주적이며 우리 아이
들을 망치는 지극히 위험한 내용들”이라며 “성혁명
교육은 바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동성애,
성전환, 유아 및 청소년 시기의 무분별한 성행위, 낙
태행위 등을 확산시켜, 육체, 정신, 가정, 사회, 국가를
모두 망치는 극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교
육에서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완전 삭제할
것을 결단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는 성혁명 내용 배제를 결단한 국교위의 12월
14일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
며 저항하며 일어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받들어 교육과정 전체 내용
에서 성혁명의 모든 내용을 완전 삭제시킨 후 고시해
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적이고 위법
적이며 극히 위험하여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성혁명
이념을 교묘하게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이념세력들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러 국민들이 안심할 집결지에 의하
여 안심할 교육과정과 깨끗한 교과서를 책임지고 만
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 밖에도 “현행 역사(국사, 세계사) 교
과서에서 대한민국 역사 및 기독교 편향, 역사왜곡이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개정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선 UN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
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
지 않고 있으며, 현대사에서 촛불집회에 과도한 분량
을 할애하고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국이자 3대 세습
독재정권인 북한에 대해 미화하고 남북화해만을 강
조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편향성을 드러
내고 있다”고 했다.

또 “고등 세계사 교과서에서 이슬람 기술은 18면
인 반면 기독교는 2면에 불과하여 분량이 지극히 불
합리하게 적다”며 “내용도 이슬람은 포교서 내용 소
개 수준처럼 미화 일색이어서 객관적이지 않은 반면,
기독교는 지극히 적은 분량에 기여도를 공정하게 하
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들도 상당하여 학생들의 기독
교 평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사 교과서에서도 일제시대 하에 기독교
가 독립운동 및 경제, 사회, 교육에 기여한 내용들, 건
국과 수호과정인 6.25, 그 이후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
서의 기독교의 지대한 기여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심각한 편향과 왜곡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 도움요청입니다

B형 혈소판 긴급지정헌혈 확보 절실

경기지방회 소속 순복음아멘교회(담임목사 임형순)에서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긴급종보기도 및 도움을 요청합니다.

순복음아멘교회 감재은 자매(만 18세)가 지난해 12월 27일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아치
료를 위한 B형 혈소판 긴급지정헌혈 확보가 절실합니다.

〈주의사항〉

- 1) 헌혈자 신체기준: 만16세~59세(남성 50kg, 여성 45kg 이상)
단, 임신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혈소판 지정헌혈이 불가능합니다.
- 2) 혈소판 지정 유효기간: 15일에 한번씩 제공 가능하오니 지속적으로 지정헌혈 부탁드립니다.
- 3) 헌혈장소에서 문진사 수혈자 등록번호를 제시하여야 함
- 4) 수혈자 등록번호: 221230-0070
- 5) 헌혈액형: B(+)형
- 6) 요청의료기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11100150)
- 7) 혈액형 확보 진행기간: 2023년 06월 28일까지
- 8) 헌혈의 집
- 전국헌혈의 집 어디서나 지정헌혈 가능합니다.
- 9) 헌혈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 10) 지정헌혈 가능 하신 분들은 성명과 전화번호를 순복음아멘교회(010-8362-47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한 혈소판 유효기간이 7일 이내 이므로 일주일에 필요한 혈소판이
분량이 초과 될 경우 폐기처분 됩니다. 그러므로 연락주시면 순번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순복음아멘교회
담임목사 임형순 · 안수집사 김남식 드림

“북한동포 구출, 우리의 큰 과제”

사단법인 북한인권 후원의 밤, 연세대동문회관서 열려

(사)북한인권(김태훈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제1회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희영 아나운서(더좋은공감 대표)와 성상모 이사((사)북한인권, 전 뉴욕 AM 1660 K-Radio 사장)의 사회로, 북한인권 영상 상영, 국민의례, 김태훈 이사장의 인사말, 윤석열 대통령 축하(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대독), 김형석 교수(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격려사, 김문수 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종엽 협회장(대한변호사회)·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의 축하, 김일주 고문((사)북한인권)의 내빈소개, 영상 축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인사말을 전한 김태훈 이사장은 “2천 5백만의 북한 동포는 최근 유엔총회가 18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보듯이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인권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동포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못 본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3월 북한인권의 마그나카

르타인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지만, 6년이 넘는 오늘날까지도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여 법이 사문화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총, ‘희망과 용기’ 나눔 운동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 전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운동으로 다양한 기부와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차에 걸쳐 30만점의 마스크 나눔을 했고, 건강 소금 제품 GG염(God-Given Salt) 5천 세트를 나눴다. 지난 9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근로자 가정에 안전화 3백 켤레를 기부했고, 최근 (사)한국청년교육문화진흥원, 몽골 경제협력기금, 세종시 산업안전협회 등에 안전화 6천 켤레 나눔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21일에는 프리미엄 명품 수제 마늘빵 브랜드인 썬미늘항기(대표 김현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늘과 양파 등으로 특히 기술로 만든 과자 및 간식류의 제품을 지

속적으로 기부받기로 했으며, 그 첫 행사로 지난해 12월 22일 마늘빵 1천 박스를 기부받아 대전시청 산하 기관, 인천 독거노인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시민인권연맹과 한기총 산하교단과 신학교 등으로의 나눔을 진행했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기총이 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까지 잘 보듬고 품어서 모두가 존중받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TS기독교TV, 시청점유율 종교부문 1위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2021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종교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약 300개 방송사

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CTS는 전체 시청점유율 0.232로 종교 채널 10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

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역 출자한 경우는 예외라고 있다.

월드비전, ‘성탄 선물 키트’ 전달

키트 당 약 10만원 상당, 3천명의 결식아동에게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성탄 선물 키트’를 전달했다.

성탄 선물 키트는 월드비전 ‘하침퍼프’ 및 ‘주말에 뭐먹니’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특별한 연말을 선물하고자 마련됐다. 월드비전은 유산균, 종합 비타민 등 영양제 꾸러미와 영양간식, 문구류 등 한 키트 당 약 10만원 상당의 제품으로 구성했다. 월드비전 성탄 선물 키트는 25개 학교 및 17개의 월드비전 사업장을 통해 총 3054명에게 전달됐다. 성탄 선물 키트를 전달받은 이윤희 학생(가명)은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 설레고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월드비전 김순이 국내사업본부장은 “모



두가 들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탄 선물 키트 나눔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온기를 전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여러 방면으로 따뜻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드비전 ‘하침퍼프’ 사업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조식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말에 뭐먹니’ 사업은 주말 동안 식사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동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있다.

“바른신학 바른교리로 한국교회 세워갈 것”

국제기독교이단대책협 ‘제15차 신학세미나’ 개최

국제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회장 임준식 목사, 이하 국이협)가 지난해 12월 2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체플실에서 제15차 신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영 교수영남신학대학교)와 임성모 목사(세움연구소)와 신학연구소장)가 나서 비단의 기준과 실제, 개혁주

의와 복음주의의 상호이해에 대해 발표했다. 최태영 교수는 예장통합총회 이단사이에 대책위원회 운영세칙에 신설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추측이나 선입견을 배제한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정치적 의도 및 판단을 배제

한다 △윤리적 과오를 이단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단 판단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여야 한다’ 성경 해석은 공교회의 신조, 신앙고백, 교리문답, 개혁신교회의 교리와 신학전통에 따른다’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기총, 대표회장 이·취임식

남윤국 대표회장, “성시화 복음화에 주력하겠다”

제43대·제44대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 대학로 소재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 1층 국제홀에서 열려 안산시 각 기관들과 유익적인 협력을 통해 안산시 성시화에 전력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상임부회장 유선오 목사의 사회로 실무부회장 박두환 목사의 기도, 서기 박형근 목사의 성경봉독, 불꽃교회 카리스찬 양단의 특별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증경회장 박종배 목사는 시 78:70-72 말씀을 본문으로 “뜻뎌 향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대표회장 남윤국 목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작은 일에도 성실한 마음으로 소임을 다해 안산시복음화를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부 회장 이·취임식에서 남윤국 대표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부족한 저에게 중책



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사랑”이라며,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취임식은 직전회장 안요한 목사의 이임사, 취임패 및 공도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3부 축하시간에는 증경회장 기수철 목사의 격려사, 합동개회총회장 이순주 목사의 축사, 안산시 이민근 시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 시장은 “기독교정신이 훼손되지 않

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안산시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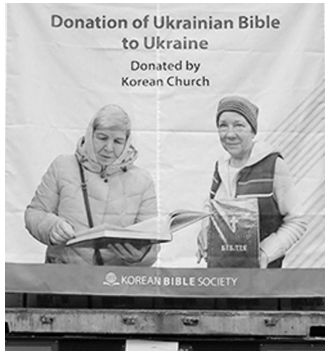
계속된 축하시간은 조수정 시인의 축사, 안기총 임원 일동의 축하, 임원소개, 사무총장 김종화 목사의 내빈소개에 이어 증경회장 이재승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안기총은 4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연합회로 초교파적으로 1천여 교회가 안산시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성서공회, 우크라이나어 성경 보내

4차 11,200부 등 총 392,800부 발송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양병희 목사) 성서사업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는 지난 12월 15일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1만1천2백 부를 우크라이나에 발송했다. 아나톨리 레이키네츠 부총무(우크라이나 성서공회)는 영상 인사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곳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이 참혹한 전쟁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싸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경을 받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은 생명을 앗아가지만, 저희는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라며 감사와 다짐을 전



했다. 공회는 앞서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우크

라이나에 3차례에 걸쳐 성경을 발송했다. 1차 발송은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만6천8백 부를 4월 25일에 발송하였다. 2차 발송은 5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만6천8백 부가 추가로 발송되었다. 7월 5일에는 3차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2만8천 부가 발송되었다. 그리고 12월 15일 4차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1만1천2백 부가 발송되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어 성서 총 39만2천8백 부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보내졌다.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에 성경 보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해진 성경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혹한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몽기총-합동개혁, 업무협약 체결

중앙아시아 선교 및 경제지원 강화

몽골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몽골복음주의 협회와 함께 몽골 현지 종교법인으로 몽골 복음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회장 김동근 장로)와 예장합동개혁총회(총회장 정서영 목사)는 몽골과 중앙아시아 선교강화를 위한 선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측의 선교협약체결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몽골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한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은 몽골의 특성상 정부기관과 경제분야의 관계성 확보를 위해 합동개혁총회는 몽골 비영리 법인 몽골한국경제지원협의회(회장 김동근)와 선교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몽골 정치, 경제분야에 복음을 심기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총회장 정서영 목사는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 유미정 선교사를 총회 소속 몽골 선교사로 파송하며 파송증서를 전

달했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한국 교회의 발전과 연합을 도모하며, 바른 선교활동을 이끌어 몽골과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북한 선교에도 기여하게 된다.

성탄절 밥사랑·선물 전달식

월드뷰티한즈-해돋는마을 쪽방촌 찾아

쪽방촌과 독거노인을 비롯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월드뷰티한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교수)와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정한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은 (사)함께하는 사랑발대대표이사 박희철)과 공동주최하고, 기금남선교회경기연회연합회(회장

이종택 장로) 주관으로 지난 12월 21일 엘드리노인대학에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초청 성탄절 사랑의 밥사랑과 선물 전달식을 갖고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정한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께 영생의 소망을 주신에 감사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깜짝 산타클로스가 된 최에스더 회장(교수, 사회복지사)은 “가난하고 소외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소셜서비스 전문NGO기관 월드뷰티한즈가 성탄절을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어르신께 밥 사랑 밥퍼서역과 뷰티서비스를 통해 삶의 의욕과 희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종택 회장은 “오늘 가장 추운데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사랑의 밥퍼 봉사로 섬기게 되어 기쁘다며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의 말씀



김 상 용 목사

· 고단 전임총회장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장 역임
· 순복음청주신학교 학장
· 한국기독교교단협 대표회장 역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음에 대한 소명과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고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마리아 성 밖의 네 문둥병자는 아랍 진영에 있는데 모든 군사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서로 양식을 나눠 먹고, 보물을 숨기다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함으로 그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인 사마리아 여지도 전도했고, 니이만의 여종도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시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또한 전도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중국인, 스리랑카인, 미국인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의 대상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동서양 오대양 육대주를 막론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피수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 성경적인 전도 방법

1)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가장 기본되는 사항으로 써 즉,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16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말씀처럼 그는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 복음 전파에 전 생애를 바쳤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전 5:17)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

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들이 보고,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된 모습이 큰 전도의 증거가 됩니다.

3)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핍박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구역장은 10명의 구역원이 1명이 되어 아찌 된 일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에베드리라고 하면 피해서 지존심이 상해서 구역에배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장은 구역원이 없어 손녀딸을 데리고 에베를 드렸더니 크게 부흥했습니다.

4) 최선을 다한 후에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월로우 크릭의 교육목사인 ‘디 스트로벨’목사는 ‘사키고 트리뷴’법률 담당기자로 14년간 일하다 회심했습니다. 그가 기자로 일했을 당시, 마감 시간에 쫓겨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마감 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마감 스트레스를 잘 넘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편집국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난 그 목사님은 신문사에서 전한 직장동료에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할 정도로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낙심을 한 그 목사

님은 전도를 그만 두었고, 그 일을 새끼뿔에 꽂아버렸습니다.

몇 년 후, 그 목사님은 기자 일을 그만 두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스트로벨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제 인생에 미진 영향이 목사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의 인사를 받은 그 목사님은 무슨 일이라고 물었고, 그 중년신사는 4-5년 전에 직직을 당해서 그 신문사 편집실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타일을 깔면서 스트로벨 목사님이 직장동료에게 전도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내용을 엿들던 그 중년신사는 그 전도가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스트로벨 목사님께 감사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16-17절)는 말씀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관지에 인간의 객지를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 목회자들의 설교와 개신교 단체의 집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여, 김용민과 평화나무가 기독교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것도 차별금지법 반대 등 교회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고발 대상으로 했으나,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는 묵인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

지금까지 수년간 김용민의 활동을 살펴보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역할을 많이 하였는데, 한때는 팟캐스트 방송인 ‘나꼼수’에서 교회의 예배와 예전과 찬송가를 악의적으로 패러디하여 공보(公憤)를 산적도 있었다.

그는 현재 진보계통의 모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에서 행한 목사의 설교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이를 고발하는 것을 주된 일로 일삼는 목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따라서 그가 속한 교단에서는 목회자의 품위와 복음 전파 사명에 적합한지를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스도인 일체운동의 활성화와 일치 증진을 위한다며 한국 그리스도교 신학과 자립지침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루터, 칼빈과 같이 목숨걸고 비 전리를 개척하지는 못 할광명 전리를 위해 피를 흘린 수 천 만의 순교자들의 피를 씻긴 것으로 여기는 패역과 배도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몰아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고 교육과정의 전면수정, 국가안보를 위한 철령방어 등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고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지켜내는데

모두 하나되어 나갈것을 소원합니다. 죽가까지 진리에 서서 아버지 편에 서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모두서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 편이 되어서는 은총을 사모하여 나갈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

임원명단

△고 문 : 조용목 목사(예수성)
△고 문 : 최보기 목사(기침)
△고 문 :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고 문 : 배진기 목사(예수성)
△고 문 :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고 문 : 김상용 목사(예수성)
△고 문 : 최상열 목사(예장동신)
△고 문 : 윤희남 목사(기침)
△고 문 : 임종달 목사(예수성)
△고 문 : 이용주 목사(예수성)
△고 문 : 정부용 목사(예수성)

△대표회장 : 정덕화 목사(예장합동보수진리)
△상임회장 : 한성복 목사(예장합동보수총회)
△회장단 : 회임교단 22인 총회장
△사무총장 : 김용도 목사(기침)
△서기 :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부서기 : 김동민 목사(예장동신)
△회계 : 권오성 목사(예장연합오순절교회)
△부회계 : 박태영 목사(예장개혁진리)
△감사 : 이상익 목사(예장연합오순절교회)
△감사 : 구광희 목사(예장개혁합동)

신년 메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와 성도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북한은 ICBM 8발을 포함해서 올해에만 미사일을 60번도 더 넘게 쏘아대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과 적화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서 야당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에 대응을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면서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발목을 잡고 무력화 시켜서 우선 먼저 경제를 파탄시키고 사사건건 무능의 프레임에 씌워서 정권타도에 온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궤방꾼이 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를 마에 이고 있는 상황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북한이 한 번도 핵 고도화를 중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우리 영해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실제로 쏘고 있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두고 나라가 이념갈등으로 편 가르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 엄중한 때 매일 우리끼리 지엽적 말쑥리를 잡고 싸우는 정치권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념갈등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권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기록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 하므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잠 9:11,12)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형통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WCC 총회를 한국에 유치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천주교회와 그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정덕화 목사, 총무: 최달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최철호 목사, 총무: 윤영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광점순 목사, 총무: 김중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한성복 목사, 총무: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강문중 목사, 총무: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최상열 목사, 총무: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이윤숙 목사, 총무: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천점순 목사, 총무: 장영광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최명진 목사, 총무: 오희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오용자 목사, 총무: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김태진 목사, 총무: 강임순 목사

한국 H I M 선교회총회
총회장: 홍정식 목사, 총무: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
총회장: 박태영 목사, 총무: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이동진 목사, 총무: 김화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푸른빛)총회
총회장: 김희기 목사, 총무: 김영철 목사
세계선교연대총회
총회장: 박용옥 목사, 총무: 최요한 목사

가 입 교 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김인환 목사, 총무: 김일엽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김병목 목사, 총무: 정진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배재한 목사, 총무: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총회장: 도용호 목사, 총무: 오갑수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et.net

송년회 갖고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해 12월 20일(화) 오전 11시 기장 동해 횡재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헌해를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 기도로 시작해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가 한 해를 정리하며 회원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말을 전하고,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제비뽑기로 나눈 후, 기장의 별미인 싱싱한 바다장어 구이로 맛난 오찬을 하고 인근 커피숍으로 옮겨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지방회 목사의 섬김으로 광안리 바닷가로 이동해 광안대교가 훤히 보이는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피자도 가벼운 저녁까지 먹고 신년하례예배 때 만나기로 하고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은 카페에서 맛있는 피자도 가벼운 저녁까지 먹고 신년하례예배 때 만나기로 하고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송년모임을 통한 회원 간 결속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조재호 목사)는 지난해 12월 12일(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 모임을 위해 보광에서 모였다. 지방회장 조재호 목사의 환영사 후 1부 예배는 총무 최동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의 기도, 전임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잠 4:23 말씀을 본문으로 '네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지방회장 조재호 목사와 임원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과 지방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지방회 회원들 모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2023년

에도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지방회도 더 좋은 지방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격려함으로 마쳤다.

증평생명교회 창립감사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조재호 목사)는 지난해 12월 10일(토) 증평생명교회(담임 양근모 전 목사)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동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가 대표로 창립하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서기 정재광 목사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의 담전 4:7-8 말씀을 본문으로 한 '믿음의 승리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지방회장 조재호 목사가 창립 및 담임교역자 취임 선포를 하고, 회계 김윤배 목사의 헌금기도, 담임교역자 양근모 전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지방회장 조재호 목사의 축도로 창립감사예배를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신학교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AG
ASSEMBLIES OF GOD



(학장 정기영 목사)

에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0803-3927
- F A X : 0510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에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최정식 목사)

에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052-7004
- F A X : 0620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김상용 목사)

에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세포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물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 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교회의 목표를 위해 적극 헌신하며 성도생활에 본이 되겠습니다”

‘권사 임직예배’ 성대하고 은혜롭게 드려져... 817명 권사 취임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임직예배가 지난해 12월 17일 (토) 오전 안양정전과, 폭설이 내린 서해안 지역의 서산·아산·천안정전 등 7개 성전에서 동시에 성대하고 은혜롭게 드려져 여성집사 788명이 권사로, 29명이 명예권사로 임직되었다.

임직자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성도의 기쁨을 위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도록 부름 받은 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오전 10시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

되어 유훈 장로의 기도, 남성 솔리스트와 호산나 성가대의 합창 찬양,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임직식 순서로 드려졌다.

조용목 목사는 롬 8:17-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권사 직분에 따르는 수고와 영광’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권사 직분에 따르는 의무와 특권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다.

조 목사는 “권사(勸士)는 권고하고 권유하며 권면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이 은사로써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직분으로 유약한 성도를 돕고, 교회를 위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에 용감하게 앞장서 헌신하는 임무가 주어진 주님의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이어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와 함께 많은 인내와 자기 절제와 희생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그 수고와 희생을 특권으로 여기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을 주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조 목사는 임직과 성도들로부터 각각 서약을 받고 임직을 공포한 후, 임직패와 임명장과 기념품을 수여하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고 교회의 지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본인은 은혜와진리교회 권사로서 하나님의 선하



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며 충성스럽게 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신임 권사들은 선서를 통해 사랑과 헌신의 각오를 굳게 다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며, 성도들은 큰 박수로 권사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주님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날 권사 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고문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동웅 목사

김병완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박노섭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대표고문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국장

상임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진동웅 목사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운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연용희 목사, 이두영 목사, 임기석 목사, 신상우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홍문표(국회의원), 김태흠(충남도지사), 강훈식(국회의원), 박경규(아산시장), 김종오(아산경찰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 교수), 박익식(전 삼성고 교장)

김병완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사무국장

이진희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진동웅 목사, 노선운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판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규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용 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한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곽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한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구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장종우 목사, 정진학 목사

이진희 목사

총무

차주병 목사

서기

이영규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계

임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중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박희종 장로

후원회 총무

황의덕 장로, 장해곤 장로

배성환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재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정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성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흥열
782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석경례)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2023년 새해 아침에

“다음세대에 꽃피울 디지털 창조과학 사역을 꿈꾸며”

코로나의 힘들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끝이 없어 보이던 긴 터널도 이제는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왠지 들뜬 마음으로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한국창조과학회에 부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과학회의 사역도 이제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창조과학 학술대회는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3년 만에 대면으로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개최된 송년모임 및 정기총회도 7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비대면 상황은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우리 교회 교육체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해외 선교사님들과 군 선교사님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대학교,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의 사역은 과거의 대면사역과 비대면 교육사역을 함

께 추진하며 효율적인 학회의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창조과학회는 2021년부터 다음세대를 위한 창조과학 사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역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창조지'의 정착과 창조과학 온라인 저널인 ORJ(Origin Research Journal) 저널이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온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노아방주 전시관'의 1차 버전 릴리즈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디지털 공간에서 재미있게 창조과학 콘텐츠를 접하도록 하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차세대 창조과학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세우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 창조과학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는 다음세대 젊은 창조과학자를 세우기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각 전문 학술 분야별 연구회를 통해 젊은 크리스천 과학자

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젊은 창조과학자를 집중 교육시키기 위한 집중교육과정(Intensive Training Course)을 개설하여 좀 더 능동적으로 젊은 크리스천 과학자들과 소통하며 동역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의 유일한 대안은 건전한 성경적 창조신앙의 선포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표어나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과 도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창조과학회는 2023년도 열정과 창의적인 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부름심을 받아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위기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성경적 창조신앙으로 세우나가는 일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3. 1. 1.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이경호 올림

차별금지법안 폐기, 기독교 사학 보호 총력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섬김도

한국교회연합 새 회기 첫 임원회 개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하 한교연)이 지난해 12월 20일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12회기 첫 임원회 열고 새 회기 임원과 상임·특별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제12회 총회 위임사항을 처리하고 새 회기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새 회기 임원과 37명의 상임·특별위원장을 확정하고 임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사람이 대표회장에게 재임명돼 한편 송구스럽고 더 책임에 막중한을 느낀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한 회기 더 임기가 연장된 만큼 한교연이 한국교회를 대변해 정부와 사회에 할 말을 하고 연합사업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기관으로 든든히 서 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총회에 위임을 받아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임명한 임원은 명예회장 권정희 목사, 김바울 목사, 김효중 목사, 박요한 목사, 심영식 장로, 원종문 목사(이상 가나다 순) 등 7명을 비롯해 공동회장 30명, 부회장 2명이며, 서기에는 홍정자 목사(예장 진리정동), 부서기 박민진 목사(예장 개혁신화), 회계 안홍수 장로(기쁜관), 김종선 목사(예

장 합동해외), 감사에 광명선 목사(예장 호한) 강규열 장로(한기연) 등이다.

임원회는 또 교회사학연구소(위원장 김바울 목사), 남북교회협력위원회(위원장 원종문 목사) 등 21개 상임위원회와 법규개정위원회(이병순 목사), 기밀실사위원회(김병근 목사) 등 16개 특별위원회 조직을 완료하는 한편 각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원회는 특히 제12회기 7대 중점사업으로 △차별금지법안 폐기 △국가변영 및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회 △한국기독교교기법과 건축 △기독교 사학 보호 △기독교언론지원 △탄소 중립 실천 △교회연합기과 통합 등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에서는 상임회장 김병근 목사의 인도로 목도 후 명예회장 권정희 목사가 기도한 후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살전 5:13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상임회장 조성훈 목사의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한교연은 2023년 1월 6일(금)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드린 '2023 신년하례예배'를 시작으로, 설 연휴가 지난 2월 초 서울 백사마을에서 '2023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등을 치를 예정이다.



살롱 나비

2023년 새해 대한민국에 바란다

지난 75년 대한민국 역사의 자유민주국 정체성을 확인 및 성공을 축하하고 단합하여 국가를 발전시키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및 선진사회 위상에 걸맞게 사회통합을 위하여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2023년 새해를 맞았다. 작년 우리 사회는 정치와 상식을 버리는 건전한 시민의식에 의하여 합리적 우파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룩하였다. 그럼으로써 새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좌편향의 정권에 의한 위헌과 법치주의의 이탈에서 벗어나, 국가 정의를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른 제도에 복귀하는 시대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살롱나비는 2023년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자유와 합리적 평등을 열망하는 국민과 지구촌에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같이 새해 소망을 발표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함께 1948년 제헌 헌법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건국된 날이다. 이 날은 황체중심의 왕조국가 대한제국에서 제헌헌법으로 국민주권의 국가가 창건된 날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황체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되었다. 1945년 한반도는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에 의하여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북한은 소련주군에 의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나 남한은 유엔의 감시하에 자유로운 비밀선거에 의하여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지난 분재인 정부 5년 동안 건국일에 대한 혼란, 헌법의 자유를 삭제하려는 개헌시도가 있었고, 소수성 성장 정책, 정권의 이념과 정책에 맞춘 통제 조작, 안보를 허무는 9.19 남북군사합정 등 지나친 종북정책에 의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습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하는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기를 바란다.

2. 자유민주국가의 성공을 축하하고 단합하여 국가를 발전시키자.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유엔의 지원을 받은 개발도시 국가 중 유일하게 지난해 유엔으로부터 선진국이라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6.25전쟁 후 국민소득 87불이라는 세계의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날 국민 소득 3만 5천불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일부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라는 부정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현실에 맞지 않다. 1948년 자유민주 헌법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역사 가운데 1980년에서 2010년까지 30년 동안 중국보다 경제와 문화면에서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국가 지표는 말해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은 핵 개발에 매달리는 세습군주제인 북한과는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GDP는 북한의 58배, 무역액은 1776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새해에 우리 국민은 새 정부를 신뢰하고 단합하여 국제사회에

자유연대로 공헌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사회통합과 선진사회 위상에 걸맞게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분리의 근본적 원인을 드러내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을 약화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문제를 덮고, 분노를 선동해 정치적 집권에 이용하는 것이다. 지난 분재인 정부는 국정 농단의 원인과 권력 남용과 국정 농단을 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포퓰리즘과 여론’을 앞세워 정적(政敵) 청산에 열을 올렸다. 지난 정부는 열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언론도 공격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를 남발했다. 시민적 불만을 동원했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데 골몰했다. 소독주도성, 최저임금 급격 인상, 탈원전 정책 등은 국가 체력을 퇴보시켰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실패와 정책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스스로 결하하게 이러한 내로남불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뼈를 긁는 태도로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4. 노동자들은 민노총의 광신적 주체사상에 휘둘리지 말고 불법투쟁 아닌 준법 투쟁하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주장하며 시작했던 16일간 총파업이 지난해 12월 9일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노총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켜 불법 파업을 막아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선진국 노동개혁의 공통점은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영리하게 설계된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정치 투쟁과 광신적 주체사상 세력에 주도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대변하는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의 노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노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5. 국민들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이태원 참사 같은 방재후진국을 탈피하자.

지난해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은 4미터 골목길에서 정체되어 일어난 후진국형 사고였다. 이태원 참사가 앞서 사고로 후진국형이란 것이 아니다. 발생과 수습 과정이 후진국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만 선진국이지, 재난 안전 면에서는 상대적 후진국이다. 우리나라 안전 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높다. 미국·일본 같은 방재 선진국은 A급이라 치면, 우리는 C급 정도다. 징후 감지 실패, 대비 미흡, 대응 조치 미숙 등 일련의 과정이 그렇다. 재난의 교훈은 “(사고 당시) 일방통행만 시켰어도, 다른 골목으로 인파 분산만 했어도, 경고사 이런만 울렸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재난 안전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미리 인파(人波)를 분산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

부가 정치적 시위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미 수년 전 젊은이들 사이에선 크리스마스 이상의 축제가 된 핼터원은 무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방·대비 같은 조치를 등한시하고 사후 수습에만 집중하는 우리 재난 관리 시스템이다. 사후 수습은 후진국도 한다. 안전한 국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재난 관리 시스템을 예방·대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6. 사법부는 법치주의로 판결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포퓰리즘에 휘둘러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법치주의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 의하여 저지르진 검수완박법은 전형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5년간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국정운영을 하고 진보 좌파 정당이 국회의 2/3를 점령하는 가운데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좌파정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의 법관들을 중용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눈치를 보으로써 그동안 지켜온 사법부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정파와 당파를 초월하여 오로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한다.

7.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좌편향 무법적 작책을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잡고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8개월 동안 지난 정권의 통제조작과 탈원전 정책, 소주

성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대장동 특혜 사건, 민노총의 과격 파업 사태 등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 관련자에 대한 인적 청산 위주보다는 제도적 위헌적 불합리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정의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에 따라서 경영되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사회통합과 국제사회의 자유와 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진 사회가 되도록 도덕적 모범과 권위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구한말 선교 초기 근대화와 복음화 통하여 일제에 의해 망해가는 국가 지킨과 독립운동에 공헌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오늘날 전통종교의 진공을 매우 고 한국사회의 주도 종교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어 대한민국이 법치와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구현하는 선진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도덕적 모범과 권위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사이의 예언처럼 나라를 미래에 위하여 정의로운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사62:10)

2023년 1월 1일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

아신대학교 대학원,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아신대학교 대학원(이하 'ACTS')에서 2023학년도 신입학 원서접수를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진행한다.

ACTS는 아세아복음화라는 비전을 품고 아시아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특별한 대학이다. 지금도 18개에서 온 67명의 외국인 학생과 함께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를 표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급변 2023학년도 전기모집에서는 △일반대학원(철학박사, 신학박사, 문학박사) △신학대학원(신학, 목회학, 성경강해학) △선교대학원(일반, 이람, 북한, 미디어, 비즈니스선교학) △교육대학원(상담, 교육과정) △상담대학원(기독교상담, 가족상담)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사회복지, 다문화교육, 다문화사회복지융합) 등 6개 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입학정원을 25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다양한 전공에서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심층 깊은 신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은 트랙제를 도입(목회, 선교, 교육, 상담 트랙)하여 목회현장별로 전문화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신도를 대상으로 성경을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신학전공(문학석사)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교육대학원은 방학중 계절제 수업, 선교대학원은 온라인 위주 석사학위과정 운영, 상담대학원은 하이브리드 수업 진행,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은 2개의 자격증을 동시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전공과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ACTS 대학원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31-770-7794-6

대학원홈페이지: www.acts.ac.kr/grad



2022년 이단 및 말 많은 단체 뉴스 TOP 10

2022년 한 해 현대종교에서 보도한 내용 중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로는, ▲아베 전 총리 총격으로 사망 ▲JMS 정명석 구속 ▲몰나라 한농복귀회 어린이 5명 사망 ▲박성업 유튜브 밋고 한국 떠난 사모 ▲변승우 추종하는 인기 유튜브 FINDER 김영현 ▲하나님의교회,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 ▲예장합신, 인터넷 이단 결의 ▲여의도 파크원과 통일교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강

독 사망 ▲물문교, 부산성전 건립 발표가 선정됐다.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단들의 대면활동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이제는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이단 시대를 맞이했다. 오프라인 이단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인기 유튜브 채널들이 화제다. 2023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할 이단들을 경계해야 한다.

- 현대종교 제공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가족세트전도 집회를 통해 도전받다!

할렐루야! 저는 2021년에 지선협약크스에서 가족세트전도 세미나를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박영수 목사님과 함께 숙소를 사용했는데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미나에서 본 동영상과 같은 능력전도의 원전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약 1분의 영접기도를 통해 전도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 워크숍을 진행한 호철의 주지요원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음료를 건네면서 교회 다니냐고 묻는데 절에 다니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이야기하니 조용해지는 것을 보았으나 인수를 하고 영접기도를 할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

워크숍 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영접기도문을 교회 칠판에 붙여놓고 3,000년 외위이었다 생각을 하였으나 30년만 외우고 그대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가을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도지를 품고 교회, 학교를 오가는 길에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

는 중에 영접기도를 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전도를 못하고 있던 상황에 가족세트전도 집회를 새생명교회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간증을 통해 주어서 영원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잊고 계으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함께 전도를 하니 너무 기쁘고 신났습니다. 또한 영접기도를 하고 인수기도를 하면서 전도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한 전도를 통해 연락처를 받은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연락하려고 합니다.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다시 전도의 열정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성령동 새생명교회 변용성 부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031-692-1691, 010-3730-2573



한국은 美 트루먼 대통령 잊어서는 안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준 최고의 은인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이 합작하여 남침한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의 잣대로부터 벗어나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우리에게 기하 절대적인 은혜를 베푼 우방의 대통령을 잊지는 않았는가?

1950년 6·25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루먼(Harry S. Truman)이다. 그는 가정 형편으로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45년 1월 20일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에 취임했다. 그해 4월 12일 루스벨트 대통령의 급사(急死)로 인하여 트루먼은 부통령이 된지 82일 만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재임 당시 한국에서 6·25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미군의 개입과 유엔 차원에서 한국을 돕도록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참전을 이끌어 낸 최고의 주역이다. 우리는 그의 은공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그리 인기가 높은 대통령은 아니었다. 그의 재임시 인기가 올라갔던 때는 1948년 재선될 때와 1950년 한국에서의 6·25전쟁 발발 때 전 미국민의

단합된 의지로 참전 결정을 지원했을 때였다고 한다.

그러나 퇴임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의 임무를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는 성탄의 기쁨!”

성탄절 맞아 전국 10개 교회 성도 1,000명 생명나눔 약속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택)는 성탄절을 맞아 전국 10개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를 통해 1,000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얼어붙은 장기기증 운동에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주일,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제주도 제주시 소재한 제주성안교회(담임목사 류정길)에서 생명나눔예배가 드려졌다. 제주성안교회는

2012년에도 한 차례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성도 815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을 만큼 생명나눔 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류정길 목사는 10년 만에 다시 진행된 생명나눔예배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나눔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나눔이다."라고 설교했다. 이어서 매년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

난을 묵상하며 한해에 참여해온 교회의 한 성도가 2013년 결혼 20주년을 기념해 50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했던 사연을 소개했다.

또한, 2018년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를 돕다 과속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았던 교회의 성도 故 김선용 씨(기증당시 19세)가 장기기증을 통해 7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전한 이야기를 차례로 나누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군비금도천일염판매

20kg

40,000원(택배비포함)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선교회·기관 다량구매 010-3000-7602 연락바랍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Copyright © Doosan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믿음으로 생명의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인생의 목표



한 사람의 생애가 선했던 이야기로 세계인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는 것은 귀한 일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부자로 록펠러(Rockefeller)를 꼽는다. 그는 33세에 이미 10만 달러를 벌었다. 43세 때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를 소유했고, 53세가 되어서는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다.

그도 53세까지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알로페시아(aloppecia)라는 탈모증과 비슷한 병을 앓고 있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은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었다. 어느 날 그는 의사로부터 결정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 같은 상태로 는 1년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당시 사업은 너무나도 잘되어서 하루에도 수십억 원씩 벌어들였다. 그러나 그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워 괴로워 하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침대 옆에서 무릎꿇고 기도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의 인생은 달라졌다. 그냥 피상적인 믿음, 습관적인 교회 출석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후에 교회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 교회가 뉴욕에 있는 유명한 강변교회(Riverside church)이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세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많은 재산을 기부했다. 그런가하면 미국 전역에 약 3,000개의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면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 37:4)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 진리의 교회 권사



성령의 화살

성령의 화살을 누가 당겼는가!

그 화살촉에 생명의 피 누가 발랐는가!

내가 무엇이관대 그 표적이 되었던가!

내가 무엇이관대 그분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는가!

내가 무엇이관대 그분께 기쁨이 되었는가!

내가 무엇이관대...

내가 무엇이관대...

은혜로다, 은혜로다, 큰 은혜로다.

방황하는 내 영혼 고요케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내 영혼 깊은 곳에 넣어 주셨구나!

성령의 화살촉은

내 심령 깊은 곳에 박히고

나는 죽고 또 나는 살았구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그 시간 흘러 흘러 스물 다섯 해

은혜의 강물타고 오늘도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그 곳으로...

소망의 그 나라로...

성령의 화살이 날아온 그 곳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난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감동을 회상한다.

사 설

사랑의 빛 외에는...

다투고 갈라지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적대적 감정이 이글거려던 2022년이 영원한 과거 속으로 흘러가고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다.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희망 없는 버려진 존재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증오와 분노를 넘어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며 화합으로 가야만 할 운명적 존재들이다. 같은 민족이며 같은 땅에서 우리와 후대들이 함께 살아야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넓어야 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음의 응어리와 매듭을 풀고 마음을 넓어야만 한다. 지금처럼 서로 물고 물리며 피차 멸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절망적 존재가 아니라 희망적 존재다. 어둠을 깨치고 밝은 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온 국민과 지도자가 함께 묻혀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섰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과거 5년간 분재인 정부의 출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갈라치기의 소용돌이로 말려들어갔고 이로 인해 두 쪽으로 갈라진 나라가 생기고 말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보수·진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니 더욱 심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다.

새해가 밝아왔다. 나라와 민족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자제하고 절제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이다. 시도 때도 없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다. 내 생각과 의견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사회는 개인이 생각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회다. 한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형태다. 한 두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소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 교묘한 교란 행위다. 여론조사에 가스라이팅 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무개념 국민의 차원을 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고력이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8-10)

MBC의 동성애 옹호와 반기독교적 행태

MBC는 성소수자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노래를 통하여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응원하고 연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방송불가’로 했었지만, 다시 동성애라는 이유로 방송불가를 내린 것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라며 번복했다. 이들이 부른 노래 가사를 보면, 충분히 기독교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반기독교적인 내용이다.

그런데도 MBC는 단순히 가수들의 구성원이 동성애라고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수정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MBC가 MBC다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명백하게 반기독교적 행태를 분명히 한 것인데, 이를 살피지 않고, 공영방송인 MBC가 반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크게 힘을 실어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성애자’로 설계하신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지

도 않은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MBC가 당초 자신들이 제대로 했던 결정을 깨면서까지 동성애 옹호와 반기독교적인 가사를 담은 노래를 ‘방송 적합’으로 변경한 것은 공영방송 MBC의 가치관과 종교를 대적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적절하지 못한 방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도 않지만, 동성애를 인정할 수도 없다. 이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영적으로 불 깨끗이인의 성적 취향, 인권 보호, 차별금지라고 주장하지만) 다시 전 악과를 따먹어 인류를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는 사탄의 음흉한 간계(奸計)이며, 달콤한 유혹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동성애’ 문제는 이 시대를 타락시키는 데 가장 나쁜 방법이다. 이를 옹인하고 전파하는 MBC 방송은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방송이며, 우리 시대를 극악하게 타락시키는 언론 매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MBC의 행태를 거부하며 공영방송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임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임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기독교대중성서(로인사살필경)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일로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